제284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 변 내용
(일문일답)입니다.

김 민 숙 의원

"무상교복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 민 숙 의원

◉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무상교복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명절 때 저도 그랬는데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대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물과 현금의 지원방식을 둘러싼 논의과정이 끝나고 2021년부터는 중 · 고등학생 모두 교복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6년 차인데 여전히 교복과 관련해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복 관련 문제를 짚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청과 함께 저도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김민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선 무상교복 지원 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취지로 201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의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쉽게 말하면,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빈부 격차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에 전념해야 되는데 복장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위화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차등적인 여러 가지 감정도

가질 수 있어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그러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 김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취지와 목적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셨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김민숙 의원

그동안 무상교복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또 시장님께서도 함께 우리 시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특히 특수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지원보다는 또 어떤 학생으로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2만 7,177명의 학부모를 대신해서 제가 질문드리니 교육감께서도 정성껏 또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복의 가격이 불합리하다는 학부모의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학교 주관 구매가 추진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교복 가격 또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교복 지원은 동복과 하복 해서 6개 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추가 구매에 따라서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교육청은 교복 관련 생활규정을 점검해서 다수 품목 구입에 따른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교복 생산업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관내 4개 학교 교복의 품목별 가격입니다.

공통적으로 재킷의 가격에 비해서 셔츠와 바지는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D학교의 경우에는 재킷과 바지의 가격이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셔츠도 5만 원 수준인데 재킷이 7~8만 원 정도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가격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 큰 차이로 보면 저희는 재킷은 거의 하나를 구입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질문했을 때는 사실 동복 재킷 금액이 조금 더 높았고요.
셔츠와 또 바지, 1개만 구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한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비싸고요.
그리고 하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그리고 긴 바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바지는 1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천도 덜 드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재킷은 주로 여벌을 잘 사지 않습니다, 1개만 구입을 하고요.
셔츠와 바지 같은 경우에는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여벌이 꼭 필요한 상태이고 또 추가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업체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온라인 교복판매점 사이트에서는 재킷이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셔츠는 2~3만 원대 그리고 바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옷은 원단이나 수공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전 교복업체들이 모두

유사하게 셔츠와 바지 가격이 비싸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학생들이 보통 사는 품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재킷 하나, 조끼 하나 그리고 셔츠는 3개 정도의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바지는 2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관내 교복업체에서 구입을 하려면 41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30만 원도 들지 않는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동·하복 세트 전체 합쳐서 30만 원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시고 각 품목별 원가 비율에 따른 적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요, 교복업체 분들과 협의회와 함께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전체 품목의 25%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바지는 전체 품목의 30%를 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품목 때문에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래는 재킷이 13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자주 사는 것들은, 1개만 안 되는 것들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킷 금액을 낮추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차이가 25%를 넘지 않아야만 여러 개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뀐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정말 잘못된 상한가를 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실제 학생들이 사야 하는 품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20개, 오른쪽에 보면 21개의 품목입니다.
품목인데요,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재킷, 조끼 그리고 셔츠, 바지 4개 정도이고요, 하복은 상의, 하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21개 정도의 그런 종류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영수증에 다 담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나 여학생이 교복을 사러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치마는 사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불편합니다, 바지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바지도 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우니까 기모 스타킹도 하나당 9천 원씩 3개는 기본으로 사야 합니다.
이렇게 품목이 너무 많은 것들도 문제이고 또 예를 들면 넥타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 그리고 벨트 그리고 후드집업 그리고 학교에서 입는 과 점퍼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끼워팔기에 대해서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지만 바로 이런 것이 영수증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끼워팔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사게 되다 보면 적어도 25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파다하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끼워팔기 문제 중의 하나는 체육복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중학교의 체육복 동복 · 하복을 세트로 구입하면요, 10만 2,000원이면 사는 체육복이 지금 실제로 교복업체에서 사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45%나 비쌉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체육복 판매를 별도로 하도록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심의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교복집에 가면 교복도 팔지만 체육복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체육복을 사게 되면 금액도 비싸고 그리고 체육업체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한 학교에 예를 들면 100명이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한 80벌 정도를 준비하는데 교복업체에서 체육복을 사기 때문에 체육업체에서는 준비했던 것을 하나도 팔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의 최저가 낙찰 방식이 업체의 담합에 의해서 요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으며 최저 낙찰가 선정방식에 따라서 공정하게 입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찰업체의 교복의 품질 심사 및 정성평가를 진행하여 교복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도 최저 낙찰로 인한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해 교복선정위원회의 샘플검사 등 관리 감독 역할이 철저히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담합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합리적으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학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쭉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입찰업체라든지 낙찰업체, 입찰단가 등의 현황 조사 및 교복업체별 교복 단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당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교복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복선정위원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천이 어떤지 또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다 만져보고 하거든요.
특히나 동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까칠한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내복을 입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부분들이 어떤지 천에 대한 것들을 모두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결정은 예를 들어서 A업체로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B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조건 최저가이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더 싸면 최저가, 이거를 아무리 선정을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최저가가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부모나 그 자리에 포함되어서 오는 학생들이나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선정위원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최저가를 하는데.
만져보고, 저도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만져보고 잘 늘어나는지, 바지의 신축성은 좋은지, 위에 재킷의 불편함은 없는지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것은 가장 싼, 최저가는 좋은 것을 최저가로 낙찰되기가 어렵지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업체들이 담합하는 것은요, 그날 현장에서 입찰을 한다라는 얘기를, 오시는 분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와서 PT를 발표하면요, 그 회사가 교복을 맞추는 곳, 직원이 오면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이미 다 이것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사장님이 오셨는지를 딱 보면 B업체다 그러면 B업체 것만 만져보고 “아, 이 정도면 됐네.” 하고 10분 만에 끝나는 것이 교복선정위원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까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서 담합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잘 감시해 주시고 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담합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담합이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품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이 없도록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치밀하게 모든 것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입는 것이 겨울에 동복은 4벌이고 하복은 2벌 정도로 해서, 동복은 재킷이라든지 조끼, 셔츠 또 하복 바지, 치마 이렇게 모든 것이 돼 있는데 이런 모든 면들에 있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품질이 상위적인 품질의 제품이 우리 학생들한테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그 방식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인데 좋은 품질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과 그다음에 최저가면 최저가와 같이 점수를 플러스 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지금 말씀 중이신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저가 낙찰할 때도 본래의 품질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기술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됐는지 1단계 심사를 거치고 2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김민숙 의원

예, 무상교복 지급 방식이 동복 1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복 1벌로 다른 것으로 품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고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동복 4피스 그리고 하복 2피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복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총 6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현물로 지원하고 있어서 품목 변경이 제한되는 측면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현재의 제도상 교복 품목 이외의 품목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관 구매 추진 시에 지원 품목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계약내용 관련 매뉴얼 지침 등의 검토를 통해서 학부모님의 교복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교복 지원 조례에는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 화면에 보면 110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추가 구매 품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체육복, 명찰, 생활복, 셔츠와 하의 여벌 등을 주로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의 학부모들은 25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응답했고요.

실제로 재킷은 저희 아이들 봐도요, 잘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드티도 있고 그다음에 과 점퍼도 있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경량패딩을 입고 또 한겨울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입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에게 충분히 물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 포함이 반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낭비가 된다.

요즘에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30만 원 기준 안에서 내가 셔츠는 꼭 하나는 필요하니 이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추가 금액이, 어떤 부모님은 아까 영수증 보셨지만 40만 원대, 60만 원대, 70만 원대의 금액이 나온다.
거기에 체육복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사실 한 쌍둥이 부모님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지만 100만 원을 훨씬 넘고요.

또 요즘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복까지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한 벌씩만 지원받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교복을 맞추러 아이랑 갔습니다.

명찰은 기본으로 10개를 판매한대요.
그래서 명찰이 이렇게 다 필요 없는데 “명찰을 10개씩이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재킷 하나, 조끼 하나 그리고 와이셔츠 제가 추가로 구매한 것들이 있어서 4개에서 5개 정도만 구입하면 되는데 “아, 5개만 구입해도 10개 값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개나 다 사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여자친구에게 기념으로 하나 주고,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10개의 금액을 다 받으셨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복이 맞춤교복입니까, 기성복입니까, 교육감님?
맞춤복이에요, 기성복이에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맞춤복입니다.

◉ 김민숙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수선비를 다 받습니다.

예전에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치수를 다 쟀습니다.
그래서 바지 기장, 사이즈라든지 이게 몇 인지 해서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교복을 맞추고 미리 결제하고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아이랑 함께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재지도 않습니다, 치수 재지 않아요.
“너, 95니, 100이니?”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냥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바지도 딱 접어서 “바지 기장 줄일 거예요, 안 줄일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지요.” 이랬더니 “6천 원 추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교복을, 왜 업체를 선정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소매 줄이고 바지 줄이고 하는 데 2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또 추가해요.
명찰도 추가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로,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아예 별도로 카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고 수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번에 명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파는 체육사에서 학부모님들이 커뮤니티에서 금액이 45%나 싸다, 이 얘기를 듣고 맞췄던 학부모님들이 체육사에 가서 사고 취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안 해주는 교복업체도 많았답니다.
저는 받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주지도 않았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학교 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업체에서는 빨리 와라 해서 교복을 맞추게 하고 나중에 만약에 1순위의 학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속상한데 가서 교복을 다시 다른 학교 걸로 교환해야 되는 이런 불편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연락 주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 업체로 와서 빨리 치수 재고 교복 맞추십시오라는 것도 오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금이나 카드, 계좌이체를 구분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카드 결제하고 현금으로 한다고 해서 싸게 하거나 이런 게 없지요.
그것처럼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교복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교복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행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무상교복 정책은 벌써 6년 차인 만큼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라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무상교복 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육감님?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교복 지원 개선을 위해서 학부모님 또 교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태스크포스팀이지요, 태스크포스를 구성 · 운영하여서 문제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타 시 · 도에서도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모든 장점이 어디 있는지, 물론 장점과 단점은 항상 어떤 제도이든지 공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장점을 아주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교복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또 타 시 · 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 · 도의 사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물 지원 또 현금 지원, 바우처 지원, 세 종류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물 지원이나 현금 지원 또 바우처 지원 등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교복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선의, 아주 최상의 교복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학부모님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잘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복이 아니라 아예 입학준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교복 바우처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복품목을 대폭 줄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고요, 요즘에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뿐만 아니라 정식적으로 조끼까지 입고 다니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최적화된 공간 안에서 최고 편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하게 학교에서 임하고 있거든요, 교복 때문에요.

이제는 아이들의 어떤, 존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품목을 적게 줄여서 뭔가 통일성만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복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 만큼 또 사복 자율화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방식이 입학지원금이라든지 또 현금 지원, 바우처카드 활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이 있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 주관 구매를 해서 현물 지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좋은 가장 최상의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품목도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가장 큰,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AI 디지털교과서가 손에 꼽히고요.

작년 12월 26일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1월 21일 정부는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까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민숙 의원님께서 아주 가장 최근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핵심과제인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본래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명칭이 디지털교과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에서 작년 12월 26일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아니고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이지요, 재의요구권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 그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5년도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교에서만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2025학년도에는, 금년도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첨가해도 될까요?

◉ 김민숙 의원

예.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AI 디지털교과서 선정과 활용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교육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꼭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앞서서 디지털교과서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북유럽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교과서로 지금은 다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저하되고 산만함 그리고 시력저하, 그리고 불안감이 높아진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자료를 보시면 작년 12월 18일 기사입니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는 현재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가 정말 교과서로써 신뢰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어떤 개발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정기간도 그렇고요, 너무 짧고 급박하게 졸속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밀크T, 엘리하이, 아이스크림 홈런과 같은 스마트 러닝 솔루션 AI 디지털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별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명절기간에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논문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빨리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충분히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상 제가 짧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작년에 많은 예산을 써서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습 환경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각 학교마다 학습 환경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여러 가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그냥 그것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서책형, 책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AI한테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하다 보면 아이들의 문해력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오히려,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은 뭐냐 하면 개인차 변인,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차 변인에 대한, 아이들마다 다 적성과 소질이 다르고

개인차 변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AI 교과서도 그런 관점에서 개인차 변인을 고려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된 것이 AI 교과서인데 중요한 것은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AI 교과서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보강해줘야 되겠구나 하면 직접적으로 아이콘택트라고 하지요, 눈을 맞추면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아이들의 모든 역량을 키워줘야만 그러한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고 상당할 정도로 모든 것에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AI 교과서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많이 의존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고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또 교사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는데요.

아이들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불안해,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내 앞날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 김민숙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교원 연수가 중요한데 실제 교육 강화 연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한 인원은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합격본이지요, 따지면, 그 발표 이후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2월과 2025년 1월에 합격본을 활용한 연수를 47과정 운영했고 향후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우리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양질의 연수를 아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AI 디지털교과서가 아주 정말로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압도적인, 대다수인 98.5%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AI 디지털교과서가 12개의 출판사에서 76개 교과서가 통과됐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출판사의 서책을 사용하고 있고 이 디지털교과서와 같이 혼재돼서 쓰는 것이 굉장히 매우 혼란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구매해야 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구독료가 올해에도 51억 정도 잡혔습니다.
3만 7,500원으로 1인당 계산했지만 실제로 업체에서는 10만 원 상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빨리빨리를 외쳤던 것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많은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시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교육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많은 의견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에듀테크 이렇게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 조원휘 의장

끝났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끝났지요, 그래서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그야말로 AI 디지털 활용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최고로 3학년 이상 1인 단말기 보급률 100% 이상 완료했고 모든 노후 단말기와 무선 AP를 교체하고 우리 전체 학교의 무선망 진단 개선사업으로 교내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서 테크센터 2개소,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디지털튜터를 33개교,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 확대에 따른 교실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구성해서 2월 4일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매주 AI 디지털교과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희망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주 꼼꼼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철저히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 되는 건가요?
드릴 말씀이 사실은 많은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우리 교복무상 지원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활용에 관해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귀한 제언을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대전교육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무상교복 지원이라든지 또 특별히 AI 디지털교과서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길러 나가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원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최대한도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